

SAC ON
SCREEN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VIP석보다 더 좋은 객석

HD

영상으로 만나는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전반 위의 구도자
그간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스크라빈 24개의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1번의 리사이틀 레퍼토리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는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를 무대

Seoul Arts Center

SAC ON SCREEN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VINCERO 예술의전당

WWW.SAC.ON.KR/SACONSCREEN

SAC ON SCREEN



KUN - WOO PAIK

PIANO

RECITAL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서울에서 태어난 백건우는 10살 때 한국 국립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으로 첫 콘서트를 가졌다. 다음 해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연주회에서 무소르그스키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을 선보였다. 15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러시아 피아니스트의 위대한 전통을 잇고 있는 로지나 레빈을, 1967년 런던으로 건너가 일로나 키보스를 사사하였고 같은 해 나움버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969년 리벤트리 콩쿠르 결선에 오른데 이어 세계적인 권위의 부조니 콩쿠르에서 골드 메달을 받은 백건우는 이후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더욱 명성을 높였다.

바흐에서 슈톡하우젠, 부조니에서 스크랴빈, 리스트에서 메시앙에 이르는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소화하는 백건우가 러시아인 레퍼토리를 선보인 시작점은 25년 전인 1990년 즈음, 1991년 단테 레이블과 스크랴빈 피아노 독주곡 전곡을 8장의 앨범으로 녹음하여 이듬해인 1992년 디아파중 상을 수상하였고, 1993년 낙소스 레이블로 발매된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전곡 녹음으로 디아파중 상 등 프랑스 3대 음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1998년에는 RCA 레이블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을 발매하였는데, 당시 한 프로듀서는 “러시아 사람보다 더 라흐마니노프를 잘 이해하는 연주자”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며 연주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그는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기사훈장>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섬마을 주민을 위한 ‘섬마을 콘서트 투어’(2013), 세월호 사고 100일 추모공연 ‘백건우의 영혼을 위한 소나타’(2014) 등 의미 있는 무대를 선보여 뜨거운 성원을 받았다.

2015년,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더 스크랴빈(1872-1915) 서거 100주년을 기리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작품의 본질을 꿰뚫는 해안으로 청중을 전율에 이르게 하는 백건우의 손끝에서 펼쳐질 러시아인 레퍼토리의 새로운 지평은 무엇일지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Park Yongbin

PROGRAM

스크랴빈 / 24개의 전주곡 Op. 11
A. Scriabin / 24 Preludes, Op. 11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소나타 제1번 d단조 Op. 28
S. Rachmaninoff / Piano Sonata No. 1 in d minor, Op. 28
I. Allegro moderato
II. Lento
III. Allegro molto